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요한 신학, 세션 7, 예수님의 I Am 말씀, 2부, 예수님의 표적, 1부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이 요한 신학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7, 예수의 I Am Sayings, 2부입니다. 예수의 표징, 1부입니다.

요한의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주님을 찾도록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 곧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넷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공부하면서 기뻐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우리 가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I Am Sayings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반복을 할 위험을 무릅쓰고, 일곱 가지의 I Am Sayings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I am the 라고 말씀하신 후,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술어 주격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I Am에는 일곱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14:6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나는 진리요, 신을 계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는 생명이요, 주는 자, 영생을 베푸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이 생명을 주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목자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와 부활, 생명이 또한 예수를 생명 주는 자로 말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진리에 관해서, 예수님은 또한 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9장에서 세상의 빛은 길, 구세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길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천상의 집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아무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께로 올 수 없습니다 . 그는 양 우리, 즉 하나님의 신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지상의 문입니다.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스라엘이 주님의 포도원이고 주님의 포도나무인 구약성경에는 광범위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배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포도원인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이 맺은 나쁜 열매에 실망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거짓 포도나무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편파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포도나무라는 명성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포도나무입니다 .

그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것의 성취입니다.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약 이스라엘이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나의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요한의 말에 따르면, 신격의 인격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보통 영은 언급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존재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화신에는 확실히 종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삶에서 그렇게 했고, 다시 그것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여기 내가 있습니다. 진짜 포도나무. 제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신격의 영의 인격 사이의 조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아들의 감독에 대한 복종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편에서 말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것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내 안의 모든 가지를 그는 제거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를 그는 제거하십니다.

그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치신다. 당신은 말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 두 가지가 모두 그에게 있는 가지가 아닌가? 그렇다.

두 가지가 구원적으로 그에게 연합되지 않았나요?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것은 단지 이미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전에 언급한 요한에 대한 주석에서 DA 카슨이 보여준 것처럼, 요한의 신학 측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다는 것은 이미지의 일부인가요? 왜냐하면 결국 열매 없는 가지는 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니면, 신약 용어나 요한의 설교를 사용하자면, 영생은 없습니다. 저는 마태 복음의 땅 비유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데는 정도가 있지만, 열매 맺는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30배 , 어떤 사람은 40배, 어떤 사람은 100배를 낳습니다 . 제 겹침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격, 기회, 믿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온갖 일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일관되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들은 보상을 잃는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 저는 이전에 뻔뻔스러운 칼빈주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르미니우스 문헌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된 신자들의 우려가 타당한 우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미니우스 형제 자매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저는 또한 그들의 우려를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해석으로부터 배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씨름했고, 때때로 그들의 글을 여기에 읽어들였습니다.

오, 그것은 보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보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맵소사. 꺾여지고 제거된 포도나무는 6절에서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그것을 다루고 개혁된 정통성을 보존하는 방법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고, 적어도 겉으로는 포도나무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매 없음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대략 다섯 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깨닫습니다.

가지치기라는 단어를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은 자들은 깨닫습니다. 함축: 유다와 같은 다른 자들은 깨닫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 당신은 내 제자임을 증명합니다. 8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누구의 우려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특히 신자들, 저와 다른 관점을 가진 신자들 말입니다. 저는 또한 아르메니아 주해를 통해 그들의 실제 신학에 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르메니아어 주해에서 2절에서 제거된 열매나 2절에서 제거된 가지가 6절에서 모아서 태워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서로 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제의 방식도 같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와 아들과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1장.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10장과 같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압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교제의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거주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사용하시는 놀라운 언어. 거하라(abide)는 meno 로 , 계속하다, 거하다,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저는 앞서 레온 모리스가 네 번째 복음서에서 연구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 요한 복음서 스타일의 특징인 변형이라는 장이 있는데, 백과사전적인 오래된 신약 연구에서 그는 요한 복음서에서 요한이 표현을 사용할 때마다 연구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요약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메노는 쓰였지만, 아홉 번이나 잊었거나, 그런 큰 숫자가 있었어요. 매번요. 어순이나 소유격을 보여주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소유격을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my나 me를 의미하는 형용사를 사용하시나요?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John은 자신의 언어를 다양하게 바꿉니다. Leon Morris가 급진적인 표현에 도달할 정도지만, John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강조의 문제라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형은 아마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맥락에 대해 조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형은 존의 스타일의 특징이며 이것이 그 전형입니다.

모든 단일한 abiding 문장 절은 때때로 작은 방식으로 다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영생을 베푸신다. 포도나무가 가지의 생명의 근원이듯이.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것은 그가 영생을 베푸는 자임을 보여주는 다섯 가지 '나' 중 하나이다.

내가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시 그 상호 거함이 있다.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해 신학자로서 저는 심판 구절을 연구했고 심판은 행위에 근거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공평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최악스러운 행위, 생각, 말, 행위가 완전해지도록 정죄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항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낳는 것은 판단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 거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선행은 그들의 행위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행위,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뜻하시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들입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들의 선행은
실제로 그들의 것이지만, 그들을 통한 예수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 나타나는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통해 뜻하고 일하시는
아버지의 선행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한 아들의 선행입니다. 그는
신성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죽고, 가지들은 모아져 불에 던져져 불에
타버립니다. 오,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잃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공언하고,
교회에 합류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작은 과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과일이 전혀 없다.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매우 나쁜 징조입니다. 그리고 우려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용하는 대사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간 그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저는 목사로 일한 기간보다 교수로 일한 기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신학자라고 생각하고 싶고, 임시 목회자도 열 번 정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습니다.

속임수는 아니야. 나는 그것을 많이 쓰지 않지만, 이렇게 돼. 모노, 모노, 일대일,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냥 그 단어를 쓸게.

존, 내가 지어낸 거야. 네 삶에서 복음과 정말 맞지 않는 것을 봤다면, 내가 네게 말해주기를 바라? 항상 한 번만은 그들이 그래,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고, 내가 그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됐지, 그렇지? 나쁜 열매였어, 진짜 나쁜 열매였지.

한때, 결혼한 친척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해요, 형제.

어쨌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냈습니다. 어쨌든, 그 작은 목가적 글의 지혜가 무료로 당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의 열매는 무엇인가? Souls One인가? 이 맥락에서는 아니다. 그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물론입니다. 여기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은 응답된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런 종류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응답된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열매입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요청은 주님과 일치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어휘적으로 남아 있거나 계속한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abiding을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맥락에서 포도나무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개념과 비슷합니다(요한 1서). 즉,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섯 사람이 당신의 구원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도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최소한의 열매만 맺힌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은 이렇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거함을 정의하는 이유는 이렇다.

이 구절에서 거의 정의하는 유일한 곳은 여기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개념은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은 확실히 큰 개인적 적용이 있는 기업 책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법인성은 결코 개인의 방종, 반항 또는 태만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친 개인주의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 책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입니다. 거기서부터 개인의 책임과 축복이 파생됩니다. 물론 개인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결코 개인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은 법인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였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이 구절의 열매 중 하나는 기쁨이다.

기쁨, 순종, 기도예 응답,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그제 예수님의 교제를 즐기는 전체적인 개념. 서로 거하는 것.

그리고 그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열두, 그것은 열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겠습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기독교적 책임에 대한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내 안에 거함으로써 당신이 내 제자임을 증명하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제외되었다.

아니요,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아들은 포도나무입니다. 그의 주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처음 열한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언약의 충실함, 말하자면. 아, 하지만 요점을 놓치지 마세요.

16절과 19절에서 그 아래에는 영원한 팔이 있습니다. 초점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책임 있는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맞춰져 있죠? 오,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선거의 창시자이신 유일한 곳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9절입니다.

당신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택했습니다. 6장에서 그가 제자들을 택하고, 666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를 떠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아니요, 그것은 단순히 제자가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임명하였노라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머물러 있게 하라. 19절은 그것을 정말 강조합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사랑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 16, 19장은 이 모든 포도나무와 가지 사업 아래에 책임과 열매 맺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은 영원한 팔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시다. 그는 정했습니다. 그는 과일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너희를 택하여 임명하였으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영속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어쨌든, "나는"의 또 다른 말씀은 가장 흔한 주제를 강조합니다 . 일곱 가지 중 다섯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의 생명과 열매의 근원이듯이,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성취이십니다. 그 점에서 그렇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참 포도나무이며, 지금과 영원토록 영생의 참 근원입니다. 마지막인 저는 11장에 있는데, 예수께서 합치십니다. 과학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광범위하게 다른 표징들을 간단히 요약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은 때때로 생명의 빵,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의 표징, 설교가 너무 결합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반복하려면 당신을 눈물 흘리게 할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생명.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나사로를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아름답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신학교 때 제가 사랑하고 아끼던 좋은 교수님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은 저를 아끼셨습니다.

상호 존중. 목사로서 회중의 누구와도 가까워서는 안 된다고 방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질투를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존경심을 담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12명 중에서 3명에 더 가까웠을까요? 그리고 왜 3명 중에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을까요? 저는 좋은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마세요. 목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심사 등을 가진 인간이라면 어떤 사람과는 다른 사람보다 가까워질 가능성이 큼니다.

아무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한 일입니다.

저는 그가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사로를 제자 중 한 명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예수는 그를 죽게 내버려두고, 영혼이 몸 위에 떠 있다는 유대인의 신화 때문에 3~4일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가 기다릴 때까지 당신은 문 못처럼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평소처럼 오해가 있습니다.

4절. 이 병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맙소사. 눈먼 사람의 눈이 먼 것은 그 또는 그의 어머니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들은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와 아들들이 얼마나 얹혀 있는지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이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그들은 당신을 돌로 쳐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가는 건가요? D A 카슨이 아주 잘 말했어요.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성경적 관점과 긴장.

How Long, O Lord에서 유명해졌습니다. How Long, O Lord에서 섭리에 대한 두 장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Divine Sovereignty and Human Responsibility는 카슨의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일부 구약 사이의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또한 절대적인 신의 주권과 진정한 인간의 책임의 역설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많은 책에서 한 것처럼. 당시에 엄청 새로 온 교수였던 나에게 그것이 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내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진실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의 책을 읽기 전에 그가 말했던 것만큼 잘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신은 주님이다.

그는 창조자, 유지자, 구원자, 완성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의미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카슨은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됩니다.

아들이 되고, 영원한 아들이 육신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신성한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인으로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5장. 그는 원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18장. 그들은 그를 체포하러 온다.

그는 내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믿을 수 없어요.

신학자가 사용하기에는 나쁜 표현이에요, 실례합니다. 정말 믿을 만하죠. 하지만 예수가 책임져야 합니다.

7장 1절. 예수님은 유대에서 그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는 그저 역설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서 그는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요한 복음에 포함되지 않음. 만약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면, A, B, C를 하세요. 오, 안 돼. 신명기, 신명기, 신명기.

그는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신인으로서 그는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얼굴에 신성한 근육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 그는 항상 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은 인간성을 강조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마의 사악한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불쌍한 제자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랍비, 유대인들은 에스토니아를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거기로 돌아갈까요?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곡하게 그리고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하지만 나는 그를 깨우려 간다. 제자들, 배를 놓치고, 오해.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그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깨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12 .

이제, 예수님, 요한의 편집 설명 중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잠에서 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제가 거기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 어떤 면에서는 태양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가자.

도마는 쌍둥이를 불렀고, 그래요, 나중에 의심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우리는 그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기 위해 가자.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을 때는 유대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요 7:1). 아버지의 뜻이었을 때는 바로 고난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신인으로서, 틀림없이 나사로는 4일 동안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거의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여기 있었더라면. 그게 그들이 서로에게 계속 말했던 거야. 만약 스승님만 여기 계셨다면, 그는 친구 나사로를 살려두셨을 거야.

두 사람 모두 소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동생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23. 마르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마지막 날의 부활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좋은 유대인입니다. 그녀는 충실한 유대인입니다. 그녀는 다니엘 12:2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25:8에서. 그리고 이사야 26:19에서.

아니요, 저는 암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성경 뒷부분에 적어 두세요. 필요할지도 몰라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기업 부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2에서 말했듯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5:28, 29에서 반복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딘가에서 저는 항상 그 언급을 잃어버리지만 어쨌든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충격적으로, 저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는 부활의 가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비록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머, 그의 말씀은 너무나 쉽게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은 두 번째 죽음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마르다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은 요한 복음의 목적을 예상합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네, 주님, 저는 당신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다른 많은 표적들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표적들은 여러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전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나사로는 믿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상한 황혼 지대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고 부활하기 전에 그의 죽음과 부활의 혜택을 거두었습니다. 네, 히브리서 9:25는 구약 성도들이 같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판단하는 데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 중간의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은,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야 그들은 정말로 이해하고 누가복음 24장을 넣었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성경 교훈을 주신 것 입니다 . 그것도 분명 도움이 되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많았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32. 그는 모든 울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울었습니다. 그분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세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맏소사,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글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은 요한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활과 소생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크리스찬 장례식은 달콤하면서도 씁쓸해야 합니다. 아, 당신은 씁쓸한 것을 전공하지 않지만, 분명 그 사람을 그리워할 겁니다. 그들이 달콤할 때를 본 적이 있는데, 화가 납니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맵소사. 애도의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 그게 예배를 지배하면 안 되지만, 그게 예배의 일부예요. 저는 기독교 장례식에서 그걸 빼먹는 걸 봤는데, 사람들에게도 공평하지 않아요. 한 명을 봤어요. 이 남자와 저는 우리의 가장 큰 아들들이 함께 공놀이를 하는 걸 보곤 했어요.

우리는 관람석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 성경 교회에서 그는 자신의 연구로 교회 사람들을 능가했지만,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믿는 교회였지만, 가르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일요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머물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때때로 자신의 생각 중 일부를 나에게 공유했고, 나를 자료로 조금 사용했기 때문에 압니다.

어쨌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그의 아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장례식 내내 그를 그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음표는, 그래야 하듯이, 지배적이었지만, 유일한 음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끝났을 때, 그들은 일어나서 먼저 교회에서 나와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주님은 아들의 눈에 세탁기를 켜셨습니다.

그는 카펫을 적셨다. 눈물만, 그는 해소가 필요했고,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는 그저 울부짖었다.

나는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가 예수님처럼 해방이 필요한 인간이어서 기뻐다. 아, 우리의 문제는 뭐지? 어쨌든, 돌을 치워. 이거 좋다.

다시 말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죄와 죽음의 악취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는 결합이 있습니다. 나란히. 놀랍습니다.

돌을 치우라.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이때쯤이면 끔찍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는 죽은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의 몸은 썩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일곱, 일곱 가지 표적, 기적. 첫 번째와 일곱 번째에서 요한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는 지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그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믿었는데, 저는 그들이 그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곱 번째 표적, 주님, 그는 미친 듯이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복음이 있어. 죄와 죽음의 악취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옆에 있어. 정말 놀랍지.

사역은 지저분하다. 죄인들은 지저분하다. 믿는 죄인들은 지저분하다.

우리는 모두 엉망진창이야. 신은 은혜로우시지. 그리고 나는 17장에서 놀랐어.

예수께서는 엉뚱하고, 더듬거리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제자들에 대해, “나는 그들 안에서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습니다.

돌을 치우고, 예수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사로가 나온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 알죠. 그런데 예수는 악취 없이 나옵니다. 유대인 관습에 따라 포장되어 있죠.

그에게 향신료 냄새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몸이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풀어주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영생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두 기적은 가장 어려운 기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전직 눈먼 사람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보다 더 나은 신학자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죽은 사람을 세 번이나 소생시킵니다.

나인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회당장.

이거 어때요? 나사로, 그의 친구 나사로. 부활에 대한 언어는 똑같고, 특별한 언어는 없어요. 아, 여기서 동사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아마도 다시 죽었을 테니까요. 라자로가 2,000년 된 고대 근동에 아직도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활이에요.

특별한 어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이 IM 속담입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요한이 이런 것들만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6에서 전체 패키지에 이런 조합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네 번째 복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징조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도요.

일곱 가지 징조. 물에서 포도주로, 2장. 공식적인 아들이 치유됨, 4장. 절름발이가 치유됨, 3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었죠? 아니면 오랜 세월 절름발이었죠.

모르겠어요, 36년, 그런 거요. 그리고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물리 치료는 없습니다.

그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6장에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라임맨은 9장에서 치유되었습니다. 나사로는 11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IM과 관련하여 이미 처리된 것에 대해 웅변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물에서 와인으로, 우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다소 상징적입니다. 요한은 상징적인 복음입니다.

카나에서의 결혼식.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습니다. 와인이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그에게 와인이 없다고 말한다. 예수는 어머니에게 무례하지 않지만, 부드럽게 그녀를 제자리에 앉힌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엄마, 내 시간표를 정하는 게 아니야.

아직 제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담을 다룰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이겠죠.

아마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가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2장 끝, 13장 시작에 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2장에 있는 것과, 이것과, 7장에 있는 것, 즉 초막절을 봅니다.

그를 믿지 않는 그의 형제들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듯이, 그를 부추긴다. 오, 연회에 가서 마술을 보여줘, 마술사. 오, 애야.

그는 말한다, 아니,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의 의미는, 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는 비밀리에, 잔치 중간에 올라갔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여기서 그는 어머니가 그를 무대로 밀어내는 것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제 해석이고, 제가 제 말을 듣는다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결코 합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둘 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이 두 장, 2장과 7장, 이 두 에피소드에서 그는 7장에서 표적을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는 7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초막절의 상징 중 일부를 취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지칭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입성에서 제 공적으로 나타날 제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날 무대로 밀어내지 마. 그런데, 여자라는 표현은 여자 같지 않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십자가에서 나온 19번과 같은 표현이야. 그는 십자가에 있어.

만약 내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말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라. 같은 단어, 여자, 같은 직접적인 호칭입니다.

그는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 친애하는 숙녀,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를 존에게 돌보라고 말기는 존경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나는 그가 그녀의 자리에 그것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존경스럽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녀는 시간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는 시간표를 정합니다. 승리의 입성 시간은 지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니, 그는 몇 년 더 가야 합니다.

그는 가르쳐야 할 것이 있고, 기적을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그를 무대 위로 밀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중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첫날 축제에 올라와서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오, 아니, 조용히. 그리고 그는 가르칩니다. 그는 여전히 물보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다시 붙잡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아버지의 시간표를 따랐습니다. 제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엄마는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 그녀는 뒤로 물러섰어. 나는 그게 좋아.

이제, 유대인 정화 의식을 위해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해설자들이, 그리고 저는 그들이 옳다고 정말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 수년간 생각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거기에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된 천을 상징합니다.

낡은 옷에 패치를 꿰맬 수 없고, 낡은 가죽에 새 와인을 부을 수 없습니다. 터질 겁니다.

요한은 공관복음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관복음의 사상을 예수가 행하거나 말씀하신 다른 일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교의 오래된 포도주를 취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포도주를 가져오십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의 첫 번째 표적에서, 문자 그대로 그의 첫 번째 표적이 아니라, 첫 번째 표적에서. 그런데, 그는 우리가 세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에 대해 그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21장에서 그는 세 번째 부활의 현현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세 번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물건을 세어 보라고 합니다. 내 세는 것이 항상 옳다는 뜻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일곱 가지 I Am 말과 일곱 가지 징조를 세고, 또 다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경고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하인들은 그에게 복종해. 이건 물이 많이 담긴 큰 항아리야.

하인들이 가득 채웁니다. 신랑의 책임은 잔치에 와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피합니다.

예수, 여기 또 다른 상징이 있는데, 신랑을 대신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주님,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화 의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낡은 가족입니다.

그것들은 낡은 옷입니다. 그것을 수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위해 새 가족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가져왔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코올 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충분히 마셨을 때 약한 것들을 나중에 꺼내고, 아마도 그들은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장 좋은 것들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습니다-11절.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며, 그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는 그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렇게 큰 규모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그의 위엄을 약간 보여줍니다.

그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완전한 기독교인이라면 불가능하죠.

그들은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점에서 그와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징조를 계속하고 4장, 절름발이를 치유한 내용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이 요한 신학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7, 예수의 I Am Sayings, 2부입니다. 예수의 표징, 1부입니다.